

새싹편지 12월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새싹편지 2013년 12월호

지금 유아교육과에서는!

예술교육 기초 특강



12월 16일부터 30일까지 3학년들의 예술교육기초 특강이 마무리되었다. 이번 특강은 학생들의 교사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체육과 국악 2가지 프로그램

이 각각 4회씩, 총 8회 동안 진행되었다.

체육은 우송유지원 체육교사인 이흥복 선생님께서 스피드 퀴즈, 이구동성, 율동, 게임 등 체육과 관련된 실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국악은 봉산탈춤 전수자이신 손성렬 선생님께서 장구의 조율방법, 사물놀이의 첫 인사와 끝인사, 휘모리장단의 7종류, 별달거리 장단 등의 평소 접하기 드문 사물놀이에 대한 기초를 배웠다.

특강이 끝나고 학생들은 "유아에게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특강을 진행해주셔서 활용도가 높은 유익한 특강이었다."라고 말하였고 전반적으로 특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고 전했다.

서울 현장학습



12월 10일 3학년 학생들은 창의적 사고의 다양성과 자기 계발을 위한 현장학습으로 서울로 향했다.

이번 현장학습을 위해 조별로 정보를 찾아보고 원하는 장소에서 할 일들을 계획했다. 그 계획에 맞추어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하였으며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북유럽 건축과 디자인'이라는 전시회관람을 하였고, 이외에도 동대문 구경뿐만 아니라 인사 등의 쌈지길, 문화의 거리를 구경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하였다. 3학년 학생들은 조별로 서로 다른 활동을 해본 뒤 소감 나누기를 통해 서로가 체험했던 것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고, 겨울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친구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뿌듯하고 보람있는 현장학습이었다고 말했다.

교재교구 공모전

12월 5일 오후 2시경 우송관 508호에서 2학년 학생들의 영유아 교재교구 공모전이 있었다.

이번 공모전은 직접 교재교구를 제작해보는 경험을 가져보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날 2학년 학생들은 각자 한 학기 동안 공들여 만든 교구를 전시했다. 이 중에 몇몇 학생들은 제작과정 시행착오 등을 발표했다. 교구의 활용도와 경제적인 면, 안전성 등을 중점으로 학생들이 서로의 교구를 평가하

였고, 심사결과는 학생들이 평가한 점수와 교수님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A반의 박지원 학생과 B반의 김진희 학생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학생들은 직접 교구를 만들어보니 처음 계획했던 도안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어 힘들었지만, 결과물이 뿌듯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주제로도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고 재료의 다양함을 볼 수 있어서 즐거웠다고 전했다.

우리들의 이야기

팝송 콘테스트 준비



12월 26일, 서 캄 퍼스 체육관에서 보건복지단체가 주최하는 팝송 콘테스트에 유아교육과 1학년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열의 가득한 1학년답게 참가하고자 하는 인원이 많아 합창으로 뭉치게 되었고, 수업이 끝난 후에 틈틈이 모여 1~2시간씩 연습을 했다.

대회 준비를 책임지고 지도했던 1학년 학과 대표 손유리 학생과 조영아 학생에게 인터뷰를 했다.

Q. 노래는 어떻게 지정했나요?

- 교수님께서 'You raise me up'과 'L.O.V.E'를 추천 해주셨는데, 연습하면서 후반부에는 더 신이 나는 노래로 분위기를 전환하고 싶다고 모두가 동의해서 뮤지컬 맘마미아의 유명한 노래인 'Dancing Queen'으로 곡을 바꾸게 되었어요.

Q. 무대 배열이나 안무는 어떻게 정했나요?

- 무대 배열은 키 순서대로 선배님이 조정해주셨고, 안무는 맘마미아 영화 중, 댄싱퀸 노래가 나오는 장면의 춤을 보고 정했어요. 마침 영아가 고등학생 때 해본 적이 있어서 아이디어를 많이 봤어요.

Q. 힘든 점은 없었나요?

- 아무래도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You raise me up'을 부르기에는 음이 너무 높아서 힘들었고 준비기간이

짧아서 연습을 많이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어요.

Q. 대회 준비를 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 많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 친구들과끼리 단합도 잘되고,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여 연습에 임하려는 노력 덕분에 화목한 분위기에서 연습할 수 있어서 기분이 매우 좋았어요.

팝송콘테스트에 참여한 1학년 김주연 학생과도 인터뷰를 하였다.

Q. 팝송 콘테스트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 1학년 때 학과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어요.

Q. 공연을 하고 난 후의 심정은 어땠나요?

- 솔직히 공연하기 전에는 떨려서 노래를 잘 못 부르면 어떡할지 많이 긴장되었어요. 하지만 솔로 파트인 지원이가 당당하게 부르며 잘 이끌어 주어서 한결 편안하게 소리를 맞춰갈 수 있었어요. 무대 바로 앞에 우리 과 교수님들도 계셔서 '댄싱퀸' 노래가 나올 때 즈음에 더욱 흥겹게 공연을 즐긴 것 같아요.

비록 대회 준비기간이 짧아 연습을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관객들의 큰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솔로 파트를 맡은 1학년 손지원 학생의 아름다운 고음과 합창의 단결력이 돋보였던 무대였다. 또한, 의상도 빨간색, 흰색 상의와 검정 하의로 맞추어 단정하면서도 발랄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냈다. 공연을 끝낼 때도, 신년을 맞이하는 "Happy New Year"을 외치며 모두의 밝은 2014년을 기원했다.

대마도에 가다.

아너스 일본어 과목을 통해 일본어과 교수님, 수업을 함께 듣는 친구들과 워크숍 차원에서 12월 12일, 13일 이틀에 걸쳐 대마도를 다녀왔습니다.

설렘과 기대를 안고 간 대마도에 도착하자 아기자기한 건물들과 파란 바다가 반겨주었습니다. 첫 날은 이즈하라의 관광지인 대마 역사 자료관, 팔번 궁 신사, 덕혜옹주 결혼 기념비, 수선사 등 6곳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있는 식당에서 직접 주문도 해보고, 조별로 간단히 맥주를 마시며 대화하면서 다른 과 친구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은 이즈하라와 정 반대에 있는 히타카츠의 만판교, 에보시타케 전망대, 와타즈미 신사, 미우다 해수욕장 등 5곳의 관광지에 가보았습니다. 이날 역시 자유시간에 현지 인과 대화도 나누어보고, 면세점도 들렀습니다.

대마도 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소는 미우다 해수욕장이었습니다. 고운 해변 모래와 에메랄드빛의 바다, 그리고 한가운데 있는 예쁜 바위섬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2일째의 일정 중 미우다 해변에서 가장 적은 시간 머물러있게 되어 아쉬웠습니다.

즐거운 대마도 여행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대마도가 지리적으로도 우리 땅과 더욱 가깝고 세종실록 등 많은 자료에 우리 땅이었던 역사적 사실도 남아 있는데 왜 우리 영토가 되지 못했는지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1박 2일이라는 시간동안 알차게 대마도를 돌아보았고,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며 시야를 넓힐 기회가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에서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나눔 프로젝트

겨울 실내 대근육활동

유아들의 대근육 활동은 실내 활동과 실외활동으로 나누어진다. 실외 대근육 활동의 경우에 유아들의 신체는 물론 자아와 주변과의 관계 형성 능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동물 흉내, 숨바꼭질, 잡기 놀이와 같은 놀이 형태의 신체 활동과 여러 가지 동식물을 직접 보고 만지면서 관찰할 수 있는 산책이 대표적인 실외 대근육 활동이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많고 추운 겨울날에는 실내에서 신문지를 자유롭게 찢고 날리고 던져보는 신문지 놀이나 유니바를 활용한 앞으로 뛰기, 옆으로 뛰기, 한발뛰기, 두발뛰기 등 다양한 활동, 터널 통과하기, 슬래잡기 등의 실내 대근육 활동을 실시한다. 요즘은 아빠들이 직접 아이들과 놀면서 유대감을 형성하는 아빠 육아가 주목을 받으면서 아이와의 유대감 형성은 물론 대근육을 키워주는 형태의 실내 대근육 활동이 확산되고 있다. 아빠와의 대근육 활동의 예시로는 쿠션을 바닥에 놓고 이불을 덮어 언덕을 만든 다음 쿠션 언덕을 굴러서 넘어가는 활동이나 바닥에 이불 4~5장을 차례대로 30cm 이상의 높이로 쌓은 후 번지점프를 하듯이 점프하는 놀이 등이 있다.



우리가 몰랐던 가공식품의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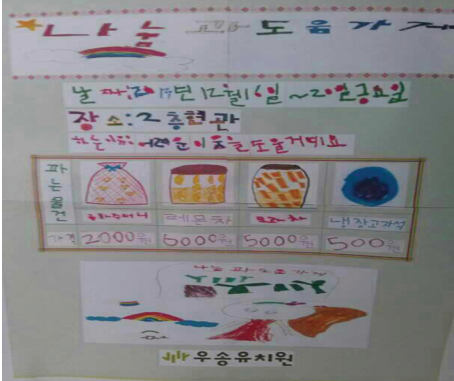
최근에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공식품에 대한 문제점들이 소개되고 있다. 바나나우유, 초코우유에는 정제당과 치자황 색소 그리고 향료가 들어가는데 특히 초코우유에는 침전물 문제를 막기 위해 ‘카라기난’이라는 발암물질이 투입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유아들이 즐겨 먹는 영양 간식으로 알려진 떠먹는 요구르트의 경우 포함된 유산균이 위산에 매우 약하여 장까지의 생존율이 매우 낮으므로 이를 위해 유산균은 식후에 먹는 것이장운동에 효



과적이며 당분함량을 조사한 결과, 당분함량이 초코과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양한 병을 유발하는 과자의 위험성을 알고 부모님들은 유기농 과자를 유아들에게 제공하지만, 이 또한 안전할 수 없다고 한다. 이처럼 예상외로 가공식품에 대해 우리가 모르고 있는 문제점이 많으며 이는 과도한 섭취로 인해 건강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점을 잘 숙지하여 섭취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송유치원 소식

나눔과 기부를 체험하다



유아들이 직접 제작한 나눔과 도움 가게 포스터 모습이다.



만 3세 유아들이 만든 포푸리의 모습이다.



만 5세 유아들이 직접 담근 레몬차와 모과차의 모습이다.



우송유치원의 나눔과 도움가게의 모습이다.

12월 10일, 만 5세 유아들이 사전활동으로 아름다운 가게를 견학해보고 이번 유치원 행사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어떤 식으로 진행해나갈지 계획해보았다.

12월 16일~ 20일 5일간 우송유치원에서 자선 가게가 개최되었다. 행사 당일 만 3세는 포푸리, 만 4~5세는 냉장고 자석, 만 5세는 모과차와 레몬차를 팔았다.

판매활동을 하기에 앞서, 만 3세 유아들은 포푸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잎들을 말리고 천도 직접 염색을 해보았고 만 5세 유아들은 모과차와 레몬차를 만들기 위해 유치원 정원에 있는 열매를 유아들이 직접 따서 말리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준비를 하였다.

또한, 이 행사를 소개하는 포스터도 만 5세 유아들이 직접 만들어 홍보활동에도 도움을 주었다. 이번 행사에서 유아들이 파는 다양한 물건들은 학부모님들이 사가셨다고 한다.

모든 활동을 마친 후 다음 주 중에 유아들이 판매하여 얻은 수익과 유아들이 가정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모아 교사들이 유아들의 이름으로 기부를 할 예정이다.

이달 우송유치원의 생활주제는 겨울 뿐만 아니라 나눔과 기부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러한 주제에 걸맞게 이번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해봄으로써 유아들은 평소에 할 수 없었던 나눔과 기부에 대해 경험하고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만드는 사람들

담당교수 : 성원경 교수님

학 생 : 김지윤 김유리 김예슬

박지원 박명옥 손혜원

강현아 김수민

김지송 김지예

